

# 현대 한국종교와 평신도 운동 — 카톨릭 편

진 교 훈\*

## I. 머리말

이 발표는 “현대 한국종교와 평신도 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천주교, 즉 카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이 해방 이후 어떻게 종단 내에서 활동해 오고 또한 대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종교적 지성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아울러 21세기의 평신도 상을 전망해 달라는 종교문제연구소의 청탁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이 발표는 II에서 카톨릭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위상과 활동을, III에서 한국 현대 카톨릭 평신도의 위상과 실상을, IV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카톨릭 평신도 활동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다루려고 한다.

## II. 천주교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정신에 따라 평신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오고 있다. 그는 “오늘날 교회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생활의 새로운 상황은 특별히 평신도들의 행동을 절실하게 촉구하고 있다.”<sup>1)</sup>고 선언했다.

평신도 없는 교회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수도자와 성직자도 평신도 중에서 나왔고, 특히 주교들(추기경)은 오랫동안 평신도들 중에서 선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1140년 『그라씨아누스 法典』(Decretum Gratiani)은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했다. 이후 이와 같은 이원구조가 연면하게 되었으며, 1983년 새

\* 서울대 교수, 철학

1)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년 반포), 3항.

교회법전이 나오게 되기 전까지 『그라씨아누스 법전』은 유일한 교회법전으로 통용되어 왔다. 1917년의 교회법전에서도 평신도의 위상은 극히 제한되었고,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성직자 활동과 평신도 활동은 분리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하느님 백성’으로 보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는 수도자나 사제(신부)와 동격(aequaliter)이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 신분에 예측되어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들 나름대로(suo modo) 그리고 자기 맡은 바대로(pro parte sua) 충분하고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세상과 세속, 물질과 육체성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교회가 바로 제도(hierarchia)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세상과 친숙하지 못했던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의해 전적으로 교회가 이끌려 왔기 때문에, 세상과 세속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왔던 평신도들의 위치와 역할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제도가 곧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속적 성격은 평신도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전통이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는 구체적으로 세상일에 종사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며 삶을 증거한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유대 관계는 끊어지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공동체는 그 뿌리가 약화되어 전전할 수 없게 된다. 평신도는 이제 더 이상 성직자와 수도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 있는 교회의 봄을 알리는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sup>3)</sup> 그러므로 카톨릭 평신도는 이제 교회의 들러리가 아니며 下女처럼 잡일이나 하는 ‘병신도’가 아니라 성직자 및 수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의 주역이다.<sup>4)</sup>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제삼천년기』는 “은사들을 받들고 평신도를 승격 시킴으로써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더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sup>5)</sup> 이 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서한 『현대적 복음 선교』를 비롯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체가 평신도를 위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신도의 권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복음화 속에서 평신도들의 참여를 위한 영역을 열어 놓았다. 즉 평신도의 선교, 사제 양성, 교리 교육, 가정·교회·

2) 같은 글, 서문 및 9항.

3) M. J. Hazard etc, *Printemps d'Eglise, Aujourd'hui Laicis, Desclee de Brouwer*(1987), 21쪽.

4) 진교훈, 「제삼천년기와 한국교회의 진로」, 한국그리스도사상 제4집(1996), 123-138쪽.

5) 1994년 11월 공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번역발간은 1995년).

인류 일반의 사회 생활 안에서의 참회와 화해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

### Ⅲ. 현대 한국 카톨릭 평신도의 위상과 그 실상

주지하다시피 1780년대에 한국 카톨릭 교회는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신앙을 찾고 기도하던 헌신적인 남녀 평신도들에 의해 ‘길을 밝히는 모임’(明道會)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민족적 주체성 안에 토착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평신도들을 교회의 주역으로 하면서 시작된 한국 카톨릭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외국의 선교사가 이 땅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자마자 너무나도 빨리 ‘성직자 중심주의’의 사목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직자 중심으로 끌려가는 교회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한국 카톨릭 교회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책임을 소극적인 평신도와 답답한 성직자가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평신도와 성직자는 함께 일하는 동반자적인 사목자가 되어야 한다. 본당의 신부나 교구장이 바뀔 때마다 평신도가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와 수도자와 성직자는 각각 서로의 고유한 품위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권위주의와 계층 의식으로 말미암아 평신도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각 본당과 교구 내에는 사목회의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있기는 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유능한 평신도의 참여 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를 위한 교육에서 매우 소극적이며,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망각한 채 사도직 참여에 있어서도 매우 수동적이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1961년 전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5·16 군사 반란이 있는 후부터 교구 지도자들과 지역 간에 정치·경제·노동 문제에 관하여 보수와 진보로 나뉘면서 견해 차이가 노정됐다. 이와 관련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일반 사제들 간에도 이를 지지하는 쪽과 이를 극력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치스러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한국 교회는 치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였고, 일부에서는 이를 선동하기까지 했다. 광주민주항쟁

을 두고도 대구교구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서는 발전적인 의미에서 일치를 모색하는 진보적 집단과 시대정표를 뒤로하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기복 종교적 보수 집단 간에 간극이 생겼다. 특히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집단에 의해 무조건 배척을 받고 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권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간에 화해와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 IV. 한국 카톨릭 평신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한국 카톨릭 교회는 200주년을 즈음하여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대표가 모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목회의를 열어 의안을 작성했고, 이것을 토대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1995년 공표했다. 이 지침서의 5조부터 8조까지는 평신도의 사명과 직무와 전례, 그리고 사목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평신도의 위상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평신도 활동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 기념 사목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중심으로, 또 발표자가 이미 발표한 「한국 천주교의 문화 정립」과 「제삼천년기와 한국교회의 진로」를 포괄해서 이제 발표자는 한국의 카톨릭 교회 평신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천주교 자체 안에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의 나눔의 실천에 평신도는 앞장 서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구 및 전국 차원의 사목협의회에서 평신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본단 및 전국 차원에서 절대다수인 여성의 사목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본단 및 교구에서 평신도가 교회의 중요 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서 그러하다.
5. 주일 강론도 평신도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 지금은 연중 평신도 주일에만 허용되고 있다.
6. 결혼상담소를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의 육성을 위해서도 평신도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16 종교와 문화

7. 평신도의 자율성을 교회는 보다 넓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평신도 사도직의 직능별 조직과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한다.
9.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교육비 투자 확대가 요청된다.
10. 한국 천주교의 토착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와 여기서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11.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 생명존중운동, 남북간의 화해, 종교관의 화해와 일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